

미술영재교육 쟁점 분석을 통한 방향 모색 - A 예술고등학교의 사례에 기초하여 -

강 주 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이 지 연

목원대학교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지원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영재교육의 양적인 팽창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술영재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영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현황에 대하여 기술한 후 미술적 소양과 흥미와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있는 A 예술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미술영재교육의 가치를 논의하고, 미술영재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설문을 통한 수요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재능 있는 학생을 위한 미술심화교육의 쟁점을 분석한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쟁점을 심화 발전시켜 미술영재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미술영재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도모라는 두 가지 프레임 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 둘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수요자에게 개별화 시킬 수 있는 미술 영재교육의 실행타당성을 국가적 정책,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을 수렴하여 장기적이며 질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학생의 개인적 자아성취와 국가차원이 미래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질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미술영재교육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영재의 선발과정에서의 산술적 평가와 양적 팽창이 아닌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본질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제어: 미술영재교육, 쟁점 중심 연구, 설문 조사, 면담법

I. 서 론

인적 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에 관심을 갖고 1970년대 후반부터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시도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영재교육에 관한 기초연구는 이후 1980년과 1990년대를 지나면서 구체화되었고 과학, 외국어, 예술, 국악, 체육 등 영역별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후 1994년에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조기 입학을 허용하는 법조항(교육법154조 2항)을 개정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일반화를 꾀하는 한편 전국 194개 교육청에서 각 영역별 심화학습 관련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김혜선, 2004). 본격적인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지원을 받으며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데 영재교육진흥법은 제1조에서 그 당위성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라고 기술하고 있다. 법령의 해석에 기초하면 영재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도모라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12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2002년 3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제도에 의한 교육 체계가 마련되었고 2003년에 이르러 미술영재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초창기에는 특목고로 지정된 예술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나 방학 중에 실시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을 운영하였다(우주희, 2002). 이 당시에는 예술영재교육의 대상이 중·고등학생이었으나, 대학입시위주교육의 영향으로 영재교육 대상자의 감소 및 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영재교육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초·중등학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타 교과와 달리 미술 교과의 특수성은 학생의 조숙성 또는 능숙성이 반드시 미술가로서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기에 영재교육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미술영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미술영재교육이 제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미술영재를 위한 교육적 실천을 보다 활발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내용처럼 미술 재능과 소양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적 인재로 성장하는 공적인 교육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교육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술분야의 경우, 영재학교는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미술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영재교육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예술고등학교 사례에 기초하여 미술영재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현황을 분석한 후 미술적 소양과 흥미와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있는 A예술 고등학교의 사례연구를 통해 미술영재교육의 가치를 논의하고, 미술영재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려 한다. 본 사례연구는 설문을 통한 수요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재능있는 학생을 위한 미술 심화교육의 쟁점을 찾아본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쟁점을 심화 발전시켜 미술영재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재구성하는 바이다.

II. 미술영재교육 현황

1. 미술영재의 개념정리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미술영재는 미술 분야에 커다란 관심과 의욕을 보이고 적

극적·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끈기를 갖고 미술활동에 참여한다고 여겨진다(한국예술영재학회, 2006). 미술영재는 일반적으로 ‘미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자’라 개념짓는다. 그러나 미술영재교육의 역사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기에 대한 독립된 역사를 규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강주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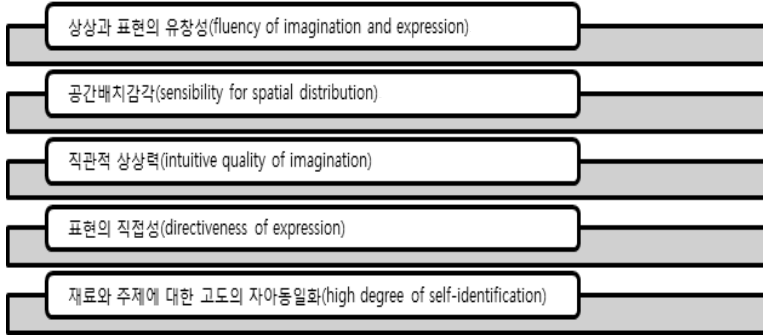
현재의 미술영재교육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시점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웬펠드(Lowenfeld)는 그의 저서 *Creative and mental growth*를 통해 미술영재의 특성을 상상과 표현의 유창성, 공간배치 감각, 표현의 직접성, 재료와 주제에 대한 고도의 자아동일화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ilson, 2006; 류재만 외, 2011).

이후, 1972년 미국정부에서 발표한 말랜드 보고서(Marland Report)에 의해서 시각예술이 공식적인 영재교육 분야로 인정되고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1974년 미국 교육부에 영재과(The Office of Gifted and Talented)가 설치되면서 1988년에는 초중등교육법의 한 부분으로 자비츠 영재교육법(Jacob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Act)이 제정되었다. 미술영재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위츠(Hurwitz, 1983)는 미술영재성을 행동적 특성과 작품의 특성,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허위츠(Hurwitz)는 그의 교육 경험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행동적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적 특성은 일반 영재특성과 공통되는 점이 많다. 그는 또한 미술영재들의 작품에 나타난 특성에 대하여도 다음 <표 1>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1> 미술영재특성 (Hurwitz, 1993)

행동적 특성	작품에 나타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의 조기 발현 (Early Evidence) • 드로잉을 통한 재능의 발현 (Emergence through Drawing) • 시각 표현 능력의 발달 속도 (Rapidity of Development) • 집중력과 인내심 (Extended Concentration) • 자기 주도성 (Self-directedness) • 창의적 행동과의 불일치 (Possible Inconsistency with Creative Behavior) • 탈출구로서의 미술 (Art as Escape) • 생각과 표현에서의 유창성 (Fluency of Idea and Expression) • 응용 능력 (Calculating Capa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적 묘사 (Verisimilitude) • 구성 능력 (Compositional Control) • 복잡성과 정교함 (Complexity and Elaboration) • 기억력과 세밀함 (Memory and Detail) • 미술재료에 대한 민감함 (Sensitivity to Art Media) • 즉흥 표현 (Random Improvisation)

로웬펠드와 브리테인(Lowenfeld & Brittain, 1987)은 영재들의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표현에 보다 비중을 두고 미술영재성을 정의하였다. 그들은 미술영재의 특성을 다음 그림과 같이 상상과 표현의 유창성, 공간배치감각, 직관적 상상력, 표현의 직접성, 재료와 주제에 대한 고도의 자아동일화 등 다섯 가지로 정의하였다.



[그림 1] 미술영재특성 (Lowenfeld & Brittan,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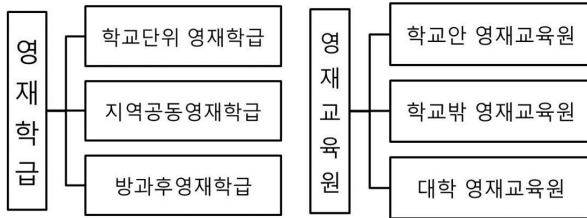
그 외에도 많은 미술교육학자들이 미술영재성을 정의하고 공통된 행동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프레이저(Praiser, 1997)는 문화적 양식에 대한 빠른 습득과 응용력, 오랜 기간을 거친 방대한 양의 작품 제작, 주제의 독창성을 미술영재의 특성을 제시하였고, 위너(Winner, 1996)는 풍부한 상상력,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력, 자연주의적인 표현을 미술영재의 특성으로 언급하였다. 밀브래드(Milbrath, 1998)는 미술영재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1, 2년 정도 일찍 구상적인(representationally)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또래 아이들과 질적으로 다른 방식의 그림을 그림으로써 뛰어난 창의성, 독창성, 집중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클락과 짐머만(Clark & Zimmerman, 2004)은 미술영재들은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하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창의적 표현을 위한 실험을 즐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술영재들은 주제 표현이 확실하고, 자신과 타인의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작품의 특징으로는 뛰어난 화면구성능력과 색감, 선과 형태의 활용능력, 특정 주제와 재료에 대한 집착, 주제와 재료의 선택이 다양하고, 작품 제작능력이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미술교육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미술영재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술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제수행에 대한 집중력과 의지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미술영재들의 작품 특성은 작품 완성도가 높고, 정교하며 주제와 재료의 사용이 탁월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술 분야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표현의 능숙성보다는 창의적 사고를 통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창의성은 조기 발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영재판별 시기에 있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영재발굴에 있어서 표현의 정교함이나 조숙성에 다소 비중을 두고 판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미술영재교육의 현황

2005년 한국교육대학교 최초로 대구 교육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이 설립된 이래로 예술영

재들은 다양한 기관에서 선발되어 교육되어 왔다. 예술영재학급/예술영재교육원의 체계현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예술영재학급은 운영방식에 따라 학교단위 영재학급과 지역공동영재학급으로 나뉜다. 영재교육원 역시 학교 안 영재교육, 학교 밖 영재교육원, 대학영재교육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내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이 가장 많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그림 2] 2009년 예술영재학급/예술영재교육원 체계 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0: 68)

또한, 2005년에는 문화부에서 예술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을 지정·설립하면서 예술영재교육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8년에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 설립되었다. 또한 1, 2차 영재교육종합진흥계획에 의해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설립되면서 2009년부터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에서 초·중등미술영재교육을 시행하게 되는 등 예술영재교육이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 예술영재교육이 확산되면서 영재교육의 질 관리 및 예술영재교육 담당교사 교육 및 연수의 기회확충을 위해서 2011년 교육 과학기술부에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예술영재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강주희, 2012).

이처럼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예술영재교육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예술영재의 개념에 대한 이해 확대 등으로 인하여 예술영재교육의 대상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9년까지 예술영재교육 대상자수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2> 예술영재교육대상자수의 연도별 증가추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0:71)

구분	2003	2006	2007	2009
예술영재교육 대상자수	420명	795명	1,110명	1,974명
전체영재교육대상자수에 대한 비율	1.9% (21,616명)	2.0% (37,238명)	2.4% (46,006명)	2.7% (73,865명)
전체 학생에 대한 비율	0.005% (7,796,796명)	0.01% (7,776,211명)	0.01% (7,734,531명)	0.03% (7,447,159명)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 수에 대한 비율은 2.7%로 수·과학 영재교육 대상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예술영재교육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2009년도 기준 분야별 예술영재교육대상자의 수를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3> 2009년도 기준 분야별 예술영재교육대상자의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0:74)

구분	음악	미술	무용 (발레)	전통 음악	연극 영화	만화 창작	뮤지컬	합계
학급수 (개)	28	57	6	7	4	1	2	105
학생수 (명)	500	1,069	115	150	80	20	40	1,974
상대적비율 (%)	25.33	54.15	5.83	7.60	4.05	1.01	2.03	100

예술영재교육 대상자수는 미술영역이 54.15%로 가장 많으며, 음악이 25.33%, 무용이 5.83% 순으로 나타나 미술영재교육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술과 음악이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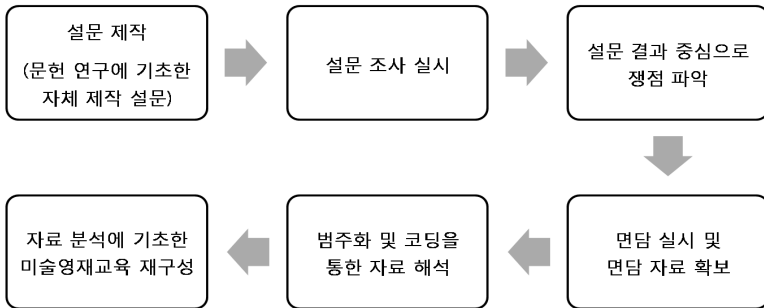
음악 영재성은 대부분 5-6세 이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조기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 기타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대상자 수가 미술에 비해 그 수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한국예술영재교육학회, 2006). 반면 미술 분야의 경우에는 조기교육이나 기술의 습득보다는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키는 것이 예술가로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재능이 발현되는 시점도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영재교육의 대상이 좀 더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현행 예술영재교육의 또 다른 동향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영재교육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있다(강주희, 2012). 2006년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무화 규정이 신설되면서 영재교육기관별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2009년부터 잠재력이 있으나, 교육의 기회 부족으로 영재성을 발휘하지 못한 소외계층 영재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 예술영재발굴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는 저소득층 미술영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인 이유에서 예술분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잠재적 예술영재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II. 현장 분석을 통한 미술영재교육의 방향성 탐색

1. 연구 방법론

본 연구의 케이스는 수도권 소재 A 예술 고등학교이며,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설문에 참여한 학생 118명, 면담법에 참여한 담당교사 2명, 미술영재교육 후 활동 중인 현역 예술가 1명이다. 미술영재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재구성하기 위해 미술적 소양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과 그 교육적 혜택, 그리고 현행 교육에서 결핍되어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미술교육 내용과 방법들에 대한 수요자 분석을 위한 케이스로 A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미술영재학교나 예술영재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예술인을 조기 육성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설립취지를 가지고 있는 A 예술 고등학교의 수요자 분석은 미술영재교육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준이 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특정 케이스의 특수한 결과물을 통해 예술적 재능과 소양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질적 교육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도구적 측면으로 케이스 분석에 접근한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조사는 2012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수행되었으며 설문조사와 면담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 절차

위의 그림과 같이 먼저 예술 영재교육의 문헌연구에 기초해 자체 제작된 설문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가치에 대한 추가 탐구 쟁점이나 중요 사안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수업 당일 현장에서 수거하여 참여도와 수거율을 높였다. 이후 본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인터뷰를 위한 기본 연구 접근으로 스테이크(Stake, 1995)의 쟁점 중심 사례연구법을 채택하였으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스프레들리(Spradley, 1979)가 제안한 반구조적 인터뷰 기법을 활용하였다. 인터뷰 자료 분석을 위한 코딩은 스트라우스(Strauss, 1987)가 제안한 선택적 코딩으로 진행하였다. 즉 임의로 자료를 범주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료

들을 통합하여 범주화시킨 후, 각 카테고리들을 서로 수렴시켜서 검토한 후 그 체계에 따라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코딩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들과 코드를 비교 분석하고 연계성과 의미 있는 쟁점을 파악하여 자료를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이해를 찾아 기술하였다.

2. 미술영재교육 재구성을 위한 설문 분석

현행 미술영재들을 위한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설문 조사로 본 사례연구의 대상인 수도권 소재 A 예술고등학교 소속 미술영재 118명에게 2012년 11월 20일 다음과 같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미술영재교육 경험, 미술영재교육 현황, 미술영재교육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미술영재 교육 경험

미술영재들의 교육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나이와 관련 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미술교육을 받기 시작한 나이를 묻는 질문에 아래 <표 1>과 같이 ‘14이상 16세 이하’라고 답한 학생이 총 77명(약 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세 이하(약 23%), 11세 이상 13세 이하(약 12%)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예술고등학교 또는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육을 받아온 학생이 그 다음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 미술교육 시작 시기

연령	10세 이하	11-13세	14-16세	합계
빈도	27	14	77	118
비율 (%)	23	12	65	100

<표 5> 미술교육 지속 기간

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합계
빈도	32	62	11	13	118
비율 (%)	27	53	9	11	100

미술교육을 받은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다음 표와 같이 응답하였다.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답한 학생이 전체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예술계 고등학교 진학 또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중학교 때 전문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는 약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술영재들의 교육경험을 살펴보면, 10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온 경우와 중학교 시절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화하기 이전에 미술영재로 선발되기 이전 혹은 이후 교육 경험의 질과 강

도, 종류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미술영재교육 현황

미술영재교육 현황 조사를 위해서 현재 받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과외 수업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약 54%의 학생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은 약 15% 정도였다. 대체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교육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현재교육기관 만족도

만족도	빈도	비율(%)
매우 불만족	2	2
불만족	15	13
보통	37	31
만족	58	49
매우만족	6	5
합계	118	100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하여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하고, 세부항목별 평균을 구하였다. 그 결과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라는 항목에 평균 3.92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반면 ‘교육비용’ 면에서는 평균 2.42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교육 환경 및 시설, 교수진, 그리고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규 학교 수업 이외에 과외수업(개인 레슨 또는 학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약 84%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비싼 과외 수업료 때문이라는 응답이 40%, 적절한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로 과외 수업을 원하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응답란에 ‘시간이 없다’는 의견을 적은 학생이 여러 명 있었다.

<표 7> 과외수업 여부

응답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빈도	19	99	118
비율(%)	16	84	100

과외수업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8> 과외를 받지 않는 이유

이유	빈도	비율(%)
현재 수업에 만족	33	28
비싼 과외 수업료	48	40
실력향상에 대한 낮은 기대감	15	13
적절한 교육 기관 부재	22	19
합계	118	100

반대로 과외를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실력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기관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6%, 동료와의 경쟁을 위해서가 16%, 부모님의 권유가 11% 있었다.

<표 9> 과외를 받는 이유

이유	빈도	비율(%)
실력향상을 위해서	9	47
기관의 교육이 부족해서	5	26
동료와의 경쟁	3	16
부모님의 권유	2	11
합계	19	100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교육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사항 분석에서는 <표 9>와 같이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 수업과 관련하여 현재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으나, 현재 과외 수업을 받고 있지 않은 학생들 중에도 과외 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가 상당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다. 미술영재교육 개선 방안 모색

미술영재교육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서 현재 교육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와 같이 좋은 습관, 지도력, 의지력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공 실기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25%로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추가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것

항목	빈도	비율(%)
자기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34	29
전공 실기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30	25
교사의 이해 및 지지	20	17
장학금	16	14
개별수업	18	15
합계	118	100

마지막으로 예술영재교육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단, 본 질문에 한하여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수준 높은 실기수업’에 대한 요구가 응답자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전문 교수진 확보, 전공 관련 수업의 확대를 바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집중적인 전공 수업의 심화에 대한 요구와 관련한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전공수업 시간 및 질의 제고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예술영재교육 개선 시 고려점

항목	응답자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2
수준 높은 실기 수업	41
전문 교수진의 확보	27
개별 혹은 소집단 수업	19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21
전공 관련 수업시간 확대	24

3. 인터뷰를 통한 미술영재교육 쟁점 분석

재능과 소양이 있는 학생들이 특화된 미술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미술 프로그램을 만족하고 있는 비율은 58%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등장을 원하는 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술교과교육의 실체는 시대와 사회와 문화에 맥락적으로 반응해 온 미술과 미술교과, 그리고 미술교과 교육학의 이론과 사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미술교과에 재능과 소양과 흥미를 지닌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전문성과 목표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입장에는 차이가 있기에 의미있는 미술영재교육이 제공해야 하는 바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인터뷰에서는 미술영재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의 재구성을 위하여 다음의 쟁점들에 중점을 두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본 인터뷰를 통한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본 장에서 구체화하겠다.

- 미술영재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외적인 성취기준인가?
- 미술영재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개인의 내면적인 자기만족과 성취감인가?

- 미술영재교육을 통해 감성, 직관, 창의성, 소양을 융합한 창의적 미래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는가?
- 미술 영재교육은 전문적 미술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가?

인터뷰를 통해 논의된 쟁점분석을 통한 미술영재교육 재구성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미술영재교육은 그들의 우수성뿐 아니라 결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소양을 보유한 학생들이 다른 측면에서는 결핍을 보이는 사례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예술영재교육은 그들의 뛰어난 재능의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본 연구자는 미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Indiana University의 매니폴드(Manifold)교수와 미술영재에 대한 대담 중에 영재라는 개념(talented or gifted)은 행운(fortunate)이라기보다는 특별하다(special)는 것이며 이들 중에는 학습장애(learning disabled)를 지니거나 보다 특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미술영재교육의 본질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상위수준의 난이도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바를 찾아서 제공함에 있음을 명확히 해준다.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술영재들은 평균 이상의 감수성, 창의성, 과업 집중성, 그리고 민감성 등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장점은 의외로 사회성과 리더쉽 등의 부족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에 미술영재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고급 난이도의 교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각예술과 관련된 과업에 소양과 흥미가 있는 아이들의 요구와 결핍을 찾아주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술영재들에게 결핍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고려하여 학습과 기술의 육성이 아닌 미술영재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미술영재교육에 대한 다원화된 선발기준과 선발방법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의 영재교육의 양적확대라는 기조 아래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급격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현장을 지원하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주가 되어왔다. 이에 영재교육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하기에 영재교육을 교육환경의 새로운 서열화를 조장하여 우수한 학생과 우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쟁구도로 여기는 대중적 인식이 저변 확대되어 왔다.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영재교육은 서열화를 위함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권리가 있다”라는 헌법 제31조 제1항이 교육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미술영재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실제적으로 재능과 소양이 있는 아이들을 정확히 판별하여 선발하는 방법과 기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술영재에 대한 정확한 선발기준이 정립되고 타당한 선발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재성과 학문적성 그리고 행동특성에 대한 세밀한 판별준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용교과와 음악교과와는 달리 테크닉의 천재성이 영재임을 담보하지 않는 미술교과의 특성상 하나의 검사나 기준으로 판별할 수 없으므로 타 영재교과보다 더욱 다양한 선발도구가 마련되어 아이에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민하게 관독할 수 있는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최상위 예술능력자를 위한 교육이 아닌 미술 영재교육은 사회적/경제적 소수자 중 예술적 재능과 흥미가 있는 학생, 예술에 흥미와 뛰어난 소양이 있으나 다른 부분에 결핍을 보이는 학생들을 수용하여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야 한다. 또한 영재선발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재능과 흥미와 관심도가 선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들의 창의성, 지능, 흥미도, 행동특성, 문제해결력, 감수성, 실기능력 그리고 직관적 사고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준거를 설정해야 하며 이 준거를 선발과정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의도 지속되어야 한다. 인터뷰 중에 떠오른 쟁점 중 하나는 선발과정에서의 평가의 순차적인 서열이 절대적인 준거가 되어야 하는가? 순차적 서열에서는 다소 우수하지 않더라도 수행할 과업과 미술교과에 대한 열정과 흥미가 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주제였다. 이러한 선발기준에 대한 정답을 본 논문이 제시할 수는 없지만 위에 제기한 다양한 쟁점들은 미술영재선발기준은 세밀한 준거와 종합적인 이해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해준다. 이에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이 지닌 잠재성을 파악하는 시도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국가 정책과 미술영재 육성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재능과 소양이 풍부한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자체의 질적인 프로그램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교육제도도 간과될 수 없다. 특히 예술 영재교육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이상적인 접근법에 대하여는 현장과 연구자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예술영재교육 담당자들이 한국 교육제도 아래 예술영재교육의 위치 선정에 대하여 우려를 느끼는 쟁점은 입시제도의 영향력이다. 교육 수요자들과 현장의 교사들은 예술 고등학교 입시단계와 교육과정 속에서 실기력을 중시하던 이전과는 달리 창의적 사고력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대학입시라는 현실적 문제 속에서 다시 이전의 교육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예술고등학교 교사들은 예술영재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현행 예술 중고등학교에서 예술영재들의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대학입시로 꼽았다. 각 대학의 선발과정이 미술교과에의 재능과 소양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여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가치(창의성, 지능, 흥미도, 행동특성, 문제해결력, 감수성, 실기능력, 열정과 흥미)들을 수용하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학입시와의 건설적인 연계성을 정립하여 보다 유연한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안에서 대학입시용 교육이 아닌 그 교육적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술영재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라. 미술영재교육은 전문적 미술가양성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한다.

미술영재교육을 받은 후 해외유학을 거쳐 현역 작가로 활동중인 작가 A와 인터뷰 중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예술가란 우리 사회에 있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려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와 미국(그리고 서구 선진국)과의 가장 큰 차이였음을 피부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예술가는 분명 전문가이지만, 졸업과 동시에 기술을 펼쳐 당장 금전적 가치를 지닌 재화/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활동에 돌입하는 류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아카데미아에서 학문을 연구하거나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사회에 있어 그들의 역할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세상을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이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 놓치고 있던 가치들을 새롭게 돌아보고 자신의 일부로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모르고 있던 것을 알아보게 해 주거나; 또는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에 대해 다시금 의문하며 비판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저서를 통해, 종교인들은 수도와 가르침을 통해, 예술가들은 작품 활동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작가 A, 2012. 11. 20.).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A의 인터뷰는 세계 수준의 우수한 과학자와 수학자, 혹은 노벨상을 목표로 하는 타 교과 영재교육과 미술영재교육의 지향점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천재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내실있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세계 수준의 위대한 미술가양성을 도모하는 것만이 미술영재교육의 지향점은 아닐 것이다. 한 예술가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표현하는 개성은 제각기 다르며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형화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현대미술작가 중에는 타 업계에 종사하다가 늦은 나이에 미술세계에 뛰어들어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도 다수 보인다. 특정학교에서 특정 내용을 마스터하면 세계적 미술가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는 개개인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미술영재프로그램은 미술가를 위한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시각예술만이 줄 수 있는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위대한 예술가의 배출이 아닌 ‘시각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기쁨을 아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다면 미술영재교육의 수혜자들이 직업의 다양성을 가지고 인문학, 공학, 경영학 등 다른 일을 할 때 ‘우수하지 않은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전문 예술인’만을 육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창작자인 동시에 예술 애호가 및 서포터, 나아가 어떤 직종에서도 창의적인 사고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까지 지향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영재교육은 미술을 통해 능력을 키워 창작뿐 아니라 여타 문제 해결이나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새롭고 독특한 시각과 방법을 생각해낼 가능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 영재교육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더한다.

인터뷰 중에 떠오른 의미 있는 쟁점 중 하나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동질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시너지효과이다. 제공받는 흥미 있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특정 교육적 환경 속에서 상당한 시간동안 예술적 재능을 지닌 또래들에게 둘러싸여 창작과 표현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여길 수 있는 환경, 상당한 수준의 기량을 갖춘 또래집단과의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미술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능 있는 학생들이 동질한 집단에 소속하여 그들의 발달적 특성과 능력과 흥미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을 때 진정한 미술영재교육의 가치가 형성된다. 동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지적, 창의적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이질적인 학생들과 공부하는 학교에서보다 그들의 잠재한 영재성과 예술적 소양이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다. 실제로 예술영재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동료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재능의 개발과 발현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다수 제기되었다. 삶의 예술적 경험과 교육의 연속성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환경구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과 교사의 소양도 중요하며 미술영재교육은 학생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IV. 결론 및 시사점

영재교육의 국가적 차원의 입장은 국가적으로 엘리트 교육이 아닌 재능 있는 모든 사람을 발굴하자는, 즉 양적확대의 기조 아래 영재교육의 수용인원을 10-15%로 잡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2%의 학생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내실화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등 영재의 개념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고의 간극과 의견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아이들은 모두 다르고, 그들은 다양한 재능과 흥미를 갖고 다양한 교육적 자극을 기대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통계상의 수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학생의 능력과 재능이 상위 1%이기에 영재이고 상위 10%이기에 영재교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산술적 평가개념에서 벗어나 미술교육에 적극적인 흥미를 보이는 학생, 감각적 체험과 직관적 사고를 즐기는 학생, 주변의 시각문화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학생, 미술 창작활동을 통해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는 학생, 미술교과에만 과제 집중력을 보이는 학생, 정교하고 세밀한 표현기술이 있는 학생 등 정규미술교육 이상의 새로운 미술교육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들이 미술영재교육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실험적 기간의 도입 없이 수많은 미술영재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미술영재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해야 한다. 교육수요자에게 개별화시킬 수 있는 미술 영재교육의 실행타당성을 국가적 정책,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을 수렴하여 장기적이며 질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학생의 개인적 자아성취와 국가차원이 미래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질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미술영재교육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주희 (2012). **시각예술성의 재개념화: 미술교육의 흐름에 비추어 본 시각예술영재성의 의미 변화 고찰**.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김정희, 강병직 (2011). **미술영재교육학**. 서울: 학지사.
- 김혜선 (2004). 미술영재교육 실태조사 연구: 미술 영재학급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18(3). 81-102.
- 류재만, 김정희, 전성수, 박지숙, 강병직 (2011). **미술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파주: 교육과학사.
- 우주희 (2002). **미술영재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 (2010).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CR 2010-8.
- 한국예술영재학회 (2006). **영재교육의 방법**. 서울: 미진사.
- Clark, G., & Zimmerman, E. (2004). *Teaching talented and art students: Principles and practice*. NY: Teachers College Press.
- Hurwitz, A. (1983). *The gifted and talented in art: A guide to program planning*. Worcester: Davis Publications, Inc.
- Lowenfeld, V., & Brittain, W. L. (1987). *Creative and mental growth*. NJ: Prentice Hall.
- Milbrath, C. (1998). *Patterns of artistic development in children: Comparative studies of tal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iser, D. (1997). Graphic development in artistically exceptional children. In A. Kindler (Ed.). *Child development in art* (pp. 115-131). Reston, VA: NAEA.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Y: Holt
- Strauss, A.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H. E. (2006). Differentiation in the art room. NAGC Conference material. retrieved from <http://hopeewilson.com/attachments/File/NAGCDiffand ArtHandOut.pdf>.
- Winner, E. (1996). *Gifted children: Myths and realities*. NY: Basic Book

= Abstract =

Demonstrating Critical Issues and Finding New Directions in Art Education for Gifted Learners

Joohee Kang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Jiyeon Lee

Mokwon University

While many research focused learners as those who excel in mathematics or science, the identification of learners with potential or demonstrated talent in visual art has also been the meaningful research topic. Since these learners exhibit high performance capability in intellectual, creative and artistic areas, they require services or programs not ordinarily provided by the schools.

This research tried to clarify what high performance means when speaking of learners with outstanding talent in the visual arts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Also, this research introduced the recent trends in the field of art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n order to demonstrate critical issues and find new directions in art education for gifted learners, this research conducted the survey, and this survey target group was arts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survey analysis, this research conducted the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focal participants including the teachers and an artist. Interviewees generated many meaningful issues, and interview analysis reconceptualized art education for gifted learners as following. 1) Gifted education should consider learners' excellence, equity, troubles, and struggles that often go unnoticed. 2) We should reform the criteria, standards, and strategies in finding art gifted learners. 3) In order to facilitate meaningful and creative art educatio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need to change the current college entrance exam. 4) The goal of gifted art education is not only raising the world-class artists. 5) Meaningful art education for gifted learners is i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including group dynamics, parents influence, and teachers.

Key Words: Gifted education in visual art, Issue-based research, Survey, Interview

1차 원고접수: 2013년 4월 18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6월 24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6월 24일